

# ‘노래운동’ 책으로도 펼친다

## 대중가요의 새 가능성 모색...이론서 출간은 아직 미흡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조금은 긴 이름의 노래운동집단이 발표한 같은 이름의 음반이 폭발적인 판매량을 보이면서 노래운동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사랑타령 일변도의 체념적인 색채가 농후한 기존의 노래풍토에 신선한 자극제가 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는 노래운동권은, 이번을 계기로 자신들의 노래가 운동권에서만 불려지는 ‘데모가’라는 오해를 불식시키면서 노래 시장의 ‘지각 변동’을 예상케 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70년대부터 대학가를 중심으로 예열되기 시작, 80년대 중반에 이르러 폭넓은 지지 계층을 얻기 시작한 노래운동은 대중가요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우리의 대중가요에 왜색혐의가 겹친 ‘뽕짝’이 간판스타로 군림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취약성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노래형식을 찾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노래운동세력이 비판하는 대중가요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실의식의 빈곤이다. 대중가요가 ‘대중’의 현실과는 완전히 괴리된 채 오히려 현실에 대한 무관심을 조장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메가폰’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노래운동의 ‘발생사’에 대해 노래평론가 이영미씨는 “기존의 노래문화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대중들의 다양한 예술적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함과 더불어 왜곡해온 사실의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래운동 이론서

최근의 노래운동에 대한 대중적 관심의 고조와는 걸맞지 않게 새로운 노래 형식의 이론적 준거가 될만한 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 이런 빈약한 상황 가운데 노래 현실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 아래 대중가요의 문제점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는 무크 「노래」는 돋보이는 출판물이다. 창간호(실천문학사, 1984)의 경우 ‘진실의 노래와 거짓의 노래’라는 주제로 대중가요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피면서 본격적인 노래비평의 장을 열고 있다. 김창남, 이영미 등의 편집동인은 창간사에서 노래 운동의 의의를 “노래의 매체적 보편성이 지배이데올로기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철저한 부정으로부터 이 땅의 민중들이 자신의 상황을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그와 함께 그들의 건강한 삶의 일부로서의 노래를 소유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현재 3호까지 나온 「노래」는, 2호(실천문학



서점가에 나와있는 노래운동 관련도서들. 최근의 노래운동은 ‘뽕짝’풍의 체념주의를 극복하고 있어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의 노래운동에 대한 대중적 관심의 고조와는 걸맞지 않게 새로운 노래형식의 이론적 준거가 될 만한 책이 부족한 형편이다. 사랑타령 일변도의 기존 노래풍토에 대한 신선한 자극제로서의 건강한 노래가 우리 노래문화의 ‘중손’이 되기 위해선 보다 활발한 이론작업이 기대되고 있다.**

사, 1986)에서는 ‘음악교육과 음악환경’을 집중 조명하고 있고, 3호(이론과 실천, 1988)는 ‘민족음악의 현대화와 실천적 문제들’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민요기행」(신정림 지음, 한길사, 1985)은 기층민중의 삶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민요를 기행문형식을 빌어 채록한 책. “민요란 건강하게 살아 숨쉬는 민중적 삶의 현장을 떠나서는 형성될 수 없다”는 저자의 관점이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이 책은, 노래운동이 제기한 민족형식에 대한 실증적인 답변이 되고 있다. 특히, 시대의 변화를 무시하고 민요의 박제화를 꾀하는 복고주의를 탈피, 새로운 민요의 형성을 불가하게 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김민기」(김창남 엮음, 한울, 1986)는 70년대 대학가의 우상이었으며 노래운동의 ‘원조’라고 지목되는 김민기의 노래 미학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책. 대중문화의 일반적 인 유통구조에서 강제적으로 쫓겨나 口傳된

수밖에 없었던 김민기 음악의 수난사를 통해 70년대 노래운동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김민기와 그의 노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의미부여를 통해 그에 대한 왜곡과 과장, 편견과 신비화를 불식하고 아울러 그를 통해 노래문화의 건전한 방향을 모색해보려 한다”는 것이 엮은이의 말. 구전과정에서 훼손된 김민기 노래의 ‘원본’을 수록, 눈길을 끈다.

「누렁 송아지」(이영미 엮음, 한울, 1989)는 앞의 책과 동일한 편집체제로 꾸며진 책. 김민기의 경우와는 달리 대중가요의 일반적인 틀에 안주하던 정대춘의 뒤늦은 자기변신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봄으로써 대중가요메카니즘의 한계와 기성가수의 노래운동 참여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 국내 노래운동의 국제적 ‘지원군’

「흑인영가와 블루스」(제임스 콘, 현영학 옮김, 한국신학연구소, 1987)는 흑인노예들의 노래 속에 배어 있는 신학적 의미와 사회학적 의미를 깊이 있게 연구한 책이다. ‘백인의 신학’을 거부하고 눌린자의 해방의 신학인 ‘흑인의 신학’을 주장한 저명한 신학자인 저자는 이 책에서 흑인영가와 블루스는 흑인공동체의 핵심적 의미, 즉 노예제도의 극복의지가 담긴 ‘문화적 그릇’이라고 주장.

제3세계의 열악한 정치상황에서 꽃핀 한 노래운동가의 전기는 우리 현대사와의 유사성 때문에 지적 호기심을 자극, 색다른 감동을 주고 있다. 「끝나지 않은 노래」(조안 한 하라 지음, 차미래 옮김, 한길사, 1988)가 그것으로 “라틴아메리카의 살아 있는 신화”라고 불려진

칠레의 민중 가수 빅토르 하라의 전기물이다. 그가 산 시대적 공간이 우리의 지난 시대와 유사해 ‘제3세계적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독재정권에 노래로 저항하면서 아옌데 정권의 수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빅토르 하라는 이후 쿠데타를 일으킨 극우세력의 가혹한 고문 끝에 사살 당하는 종말을 통해 건강한 노래가 얼마나 독재자를 두렵게 하는지를 비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기대되는 노래운동이론서 출간 작업

빈약한 노래 운동관련 이론서에 비해 그간 활발히 전개된 노래 운동의 실천적 결과물인 악보집은 그 종류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게 출판되었다. 더욱이, 단행본에서 명곡(?)만을 엄선, 편집한 복사본의 유통까지 감안한다면 그 수량은 가히 천문학적이다.

단지 독자의 편의를 위해 이들 가운데 절판되지 않고 꾸준히 출간되고 있어 서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악보집을 열거하면, 「아침이슬 1집」(아침, 1988) 「살아오는 동지여」(청년사, 1988) 「어머니의 노래」(학민사, 1989) 「일터의 노래」(새길, 1989) 「꽃다지」(열사람, 1990) 「삶의 노래, 사랑의 노래」(천마, 1990)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이론작업과 실천작업의 불균형은 일단 이론 작업이 지나치게 선도적일 때 나타나는 탁상공론의 공허함을 겪게 되지 않은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지금의 대중적 열기를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노래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보다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이론작업이 필요하다”는 한 노래운동관련자의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듯. 왜냐하면 아직도 “소위 ‘뽕 노래’가 여전히 그 특유의 병폐성의 오락줄로 대중의 감수성을 뽕뽕 묶어 놓고 노래문화의 ‘중손’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있기 때문이다.

—이권우 기자

### 고침

본지 제56호(90.2.20) 12~13면에 실린 「대표작선집의 대표성 믿을 만한가」 기사 중 13면 둘째단 1~4행이 12면 마지막행 다음으로 이어져야 하기에 바로잡습니다. 필자 이남호교수와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 근대회화사의 전모 담은 '가정미술관'

금성출판사 펴냄 「한국근대회화선집」

언제부터인가 '해방공간의 문화'라는 말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말이 되었다. 1987년, 431종의 이념서적들이 해금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정지용, 김기림 등 낯·월북 작가들의 문학 작품들도 '정당한' 경로를 통해 서점가에 등장하고 있다. 우리의 문화사적 공백기를 메꾸기 위한 작업에 있어서 필요조건이 되는 이러한 여건조성은 차츰 문화계 전반으로 파급되어 이 방면의 활발한 연구작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는 '수감'된 작품의 단순한 '사면'이 아닌, 그것들을 기초로 한 정당한 평가작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더불어 의욕적인 소장학자들의 주요관심대상이 되고 있는 '근대'의 시대적 개념정립 작업도 '해방기'와 접목되는 연속작업으로서 갈수록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이번에, 해금된 월북작가들의 작품들과 함께 근대 한국화단을 대표하는 68명의 작품 1,350점을 소개하고 있는 「한국근대회화선집」(금성출판사 펴냄)의 출간은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미술계에 의미있는 자극을 주고 있으며, 미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반가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총68명, 1350점의 작품 수록

언전에 지금은 폐기처분된 「한국현대미술 100인선」 120권을 기획, 출간하기도 했던 금성출판사(대표 金洛駿)는 미술선집의 특수성-비싼 제작비, 작품확보의 어려움, 책임있는 전문가의 부족, 구매력의 한계-으로 일반 단행본 출판사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기획을 시도, 지난 '86년부터 4년여에 걸친 작업 끝에 이번 선집을 내놓게 되었다.

한국화 12권, 월북화가 작품집을 포함한 서양화 14권 등 총 126권으로 구성된 이 선집에 수록된 작가들을 살펴보면, 근대 한국화의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心田 安中植을 비롯, 趙錫晉, 金圭鍊, 金殷鎬, 李象範, 盧壽鉉, 李用雨, 卞寬植, 許百鍊, 許捷, 李應魯, 金永基, 金基昶, 朴峽賢, 裴濂, 成在傑, 張遇聖, 千鏡子, 朴生光, 安東淑, 李惟台, 金正炫 등 28명의 한국화가들과 羅蕙錫, 李鍾禹, 都相鳳, 金仁承, 吳之湖, 具本雄, 李仁聖, 金煥基, 朴壽根, 李仲變, 劉永國, 柳景琛, 南寬, 權玉淵, 朴泳善, 任直淳, 朴商玉, 孫應星, 崔榮林, 張旭鎭, 金興洙, 文學晉 등 18명의 서양화가, 그리고 裴雲成, 金培俊, 金周經, 吉鎮變, 鄭玄雄, 李快

大, 林群鴻, 鄭鍾汝, 崔載德, 金晚炯, 鄭溫女, 李建英 등 12명의 월북작가들을 포함하고 있다.

미술평론가 이구열, 서울대 미대 임영방, 국립현대미술관장 이경성씨 등 3명의 편집위원에 의해 선정된 이들 수록작가들은 한국 근대회화 전문부에 걸친 기념비적 작품들을 남긴 작가들로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존 작가들의 경우에는 60대 후반의 원로 화가로 한정되고 있다.

국배판에 무광택 특수아트를 사용, 전작품을 원색도판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작가별 각권에는 金潤洙, 李逸, 劉俊相, 吳光洙씨 등 여러 평론가들이 집필한 전문적인 작가론, 작품해설과 함께 상세한 연보 및 관계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번 선집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국내 최대규모'로 평가되는 수록작가와 작품의 방대한 양, 그리고 국내 최초로 월북작가들의 작품이 공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편집위원 외에도 4명의 편집팀을 따로 구성, 제작비만도 10억이 투입된 방대한 작업의 결과에 대해 이제 공정한 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이채형(홍보실 차장)씨는 그동안 실제로 촬영한 작품사진만도 3천여 컷에 이른다고 말한다.

"평소 소수의 수용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미술선집에 불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미술선집 기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제작기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수록작품을 직접 우리들이 찾아가 촬영하기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호암미술관 등 각 미술관과 박물관, 화랑 등을 비롯해서 개인 소장가들에게 모두 저작권료와 사례비를 지급하면서 진행된 촬영작업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작품을 촬영한 곳은 호암미술관으로 약 200여점을 촬영했으며, 특히 화랑협회 회장으로 있는 박명자씨의 도움이 컸다고, 가끔 개인 소장가들로부터 직접 연락이 오기도 했는데, 그 소장품들은 한국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 소장가들에 저작권료 주며 작품촬영

최근 인쇄기술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일본이나 기타 '인쇄선진국'의 수준에는 못미치고 있는 것이 국내 실정이다. 특히 화집이라는 특성에 비추어 원화가 갖고



있는 색채의 완벽한 재생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이채형씨는 '그림의 시간'을 강조한다.

"일본화집들은 대개 보색효과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화집은 우선 국내인쇄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원화가 담고 있는 '시간의 흐름'을 살리기 위해 색채의 농담과 화집에서의 상대적 크기에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

이 선집의 또 하나의 특징인 월북작가들의 작품은 그동안 대부분 인멸되었던 작품들 중 1989년 9월까지 확인 및 접근이 가능했던 것들을 모은 것으로서 개인소장품들이 대부분이다.

현재 '한국근대미술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이번 기획의 산파역을 했던 상임편집위원 이구열씨는 한국회화사에 있어서의 근대미술을 "1880년대부터의 급속한 서양문화 유입과정과 1910년의 국권상실 및 일제 식민지 상황, 그리고 1945년의 민족해방 및 주권회복으로 이어진 명암과 굴절의 상황에서도 전통의 창조적 계승과 시대적 성격의 새로운 양상을 활발히 전개"시켰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다.

"한국 근대회화의 핵심적 단면을 명료하게 밝힘으로써 이 분야의 전문가나 전공학생들은 물론 일반 애호가들의 근대회화에 대한 인식을 넓혀 주려는 의도에서 시작했습니다. 원래 작품감상은 미술관이나 화랑을 찾아가 직접 원화를 보는 것이正道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미술선집은 이러한 의미에서 '가정 미술관(Home Museum)'의 역할을 하며, 오히려 전집을 보는 독자들을 미술관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물론 작품수집이었지만 작가선정은 워낙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애로점이 많았다고 밝히는 이구열씨는, 빠진 작가들의 작품을 보충하여 증보판을 낼 계획이라고 한다.

애초의 편집의도 중의 하나였던 '돈 많은 사람들의 서재 장식물에서 탈피한 생활속의 미술선집'이라고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81만원)이 실제적인 흠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지만, 워낙 많이 투입된 제작비를 감안해야 할 것 같다.

## '생활속의 미술선집' 지향해

현재 국내에 개인화집을 갖고 있는 작가는 의외로 드물다. 그 이유는 거의 자비출판에 의존하고 있는 화집출판의 '관례'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시회를 통한 작품활동에만 주력하고 있는 작가 자신들의 경향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시회 팜플렛이 개인화집의 역할을 해왔고, 직접 전시장을 찾지 않는 이상 작품감상의 기회는 좀체로 갖기 어려운 실정이다.

비단 화집뿐만 아니라 미술관계 서적도 다른 분야에 비하면 양적으로 열세를 보이고 있고, 창작위주의 교육으로 이론적인 연구작업에 있어서도 상대적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작금의 미술계의 상황에서 그동안 올바른 이해와 평가를 받지 못했던 근대미술 작품들을 모아 새로운 시각의 작가, 작품론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 이 회화선집은 우리나라 화집출판의 긍정적 발전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고 있으며, 회화사 연구의 '맥 잇기' 작업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소연 기자